

5·18 사적지 73곳 스토리텔링 연계 ‘표 정의 로드’ 만든다

광주시, 5·18문화중심도시 2019년 계획안 ‘임을 위한 행진곡’ 대중화·세계화 광주비엔날레관 신축 사업도 추진

광주시가 ‘아시아 정의 로드’를 만들고 광주비엔날레관을 신축하는 등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2019년 연차별실시계획안’을 발표했다.

광주시는 15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연차별로 진행하게 되고, 오는 2019년에 새롭게 시작할 사업을 담은 ‘2019 연차별 실시계획안’을 마련하고 의견수렴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안은 크게 ▲문화도시 환경분과 ▲문화예술 진흥분과 ▲문화산업 육성분과 ▲문화관광 진흥분과 등 4개 분야로 나뉘고 총 12개의 신규 사업을 담고 있다.

우선 총사업비 75억원을 들여 광주시와 전남도 전역에 분포한 5·18민주화운동 사적지 73곳과 민주·인권·평화의 ‘오월광주정신’ 관련 자원들을 스토리텔링으로 연계하는 ‘아시아 정의 로드’를 조성하게 된다.

또 총사업비 70억원을 들여 ‘임을 위한 행진곡’ 대중화·세계화 사업’도 진행된다. ‘임을 위한 행진곡’의 관현악교향곡 제작, 창작뮤지컬 제작, 표준가사 번역 및 보급, 국제학술행사, 홀로그램 뮤지컬 제작 등의 사업이 결들여진다.

오는 2021년에는 유네스코 창의도시 160여곳의 시장단과 대표단이 참석하는 유네스코 창의도시 연례총회(20억원)를 유치하고, 광주빛고을아트스페이스에 ‘아시아미디어아트 창의랩 구축·운영’(47억원) 사업도 진행된다.

현 광주시 북구 비엔날레주차장 부지에 들어서는 광주비엔날레관 신축(1200억원) 사업과 ‘한국문화기술(CT)연구원 설립’(1987억원)도 추진된다.

■ 2019 연차별실시계획안(신규사업)

문화도시 환경분과		〈단위:억원〉
아시아 정의로드 조성	75	
님을 위한 행진곡 대중화·세계화 사업	70	
문화예술 진흥분과		
2021 유네스코 창의도시 연례총회 유치	20	
아시아 미디어아트 창의랩 구축·운영	47	
광주비엔날레관 신축	1200	
문화산업 육성분과		
한국문화기술(CT) 연구원 설립 추진	1987	
아시아 문화콘텐츠 교류사업	75	
아시아 문화산업 투자조합 제3호 결성 및 육성	100	
문화관광 진흥분과		
남도가람 자연생태박물관 조성	100	
첨단융복합(VR/AR/MR) 콘텐츠 활용 버추얼 광주관광 프로젝트	300	
문화전당·월봉서원 연계 문화교류 구축	184	
아시아 줄 문화 공원 조성	100	

이 밖에도 ▲아시아문화콘텐츠 교류사업(75억원) ▲아시아 문화산업 투자조합 결성 및 육성(100억원) ▲남도가람 자연생태박물관(100억원) ▲첨단융복합 콘텐츠 활용 버추얼 광주관광 프로젝트(300억원) ▲문화전당·월봉서원 연계 문화교류 구축(184억원) ▲아시아 줄문화 공원 조성(100억원) 등도 신규사업으로 선정됐다.

하지만 모든 사업이 대규모 예산이 필요하고 50%가량은 국비 지원을 받아야 하며,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민자를 유치해야 하는 만큼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오는 30일 문화체육관광부에 승인 요청을 한 뒤 내년 3월에 승인이 되면, 본격적으로 오는 2019년 국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귀국길 지진 소식에... 문재인 대통령이 부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인도네시아·베트남·필리핀 3개국 순방을 마치고 15일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 굳은 표정으로 전용기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문대통령 “지진, 원전 등 산업시설 안전 철저히 점검”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

수능생 심리적 안정 대책도

동남아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 청와대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수보회의)를 소집, “원전을 비롯해 여러 산업시설의 안전을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수능 시험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공화당을 통해 귀국한 뒤 곧바로 청와대로 복귀, 4시 30분부터 5시45분까지 85분여간 수보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귀국 비행기 안에서 국가위기관리센터장으로 부터 포항 인근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에 대한 상황을 보고받고 즉시 수보회의의 소집

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원전뿐만 아니라 여러 산업시설들의 안전을 철저히 점검하라”며 “수능시험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비하여 대책을 강구하되, 특히 수험생들의 심리적 안정까지도 배려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교육부와 행정안전부의 책임 있는 당국자가 포항지역 현장에 직접 내려가 수능시험 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과 국토교통부에 민반의 대비태세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경주지진을 직접 경험해 보니 지진이 발생했을 때 본진뿐만 아니라 여진 등의 발생에 대한 불안이 컸다”면서 “현재 발생한 지진이 안정범위 이내라고 해서 긴장을 풀지 말고 향후 상

황을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여야도 경북 포항에서 5.4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정부에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특히 하루 뒤 치러지는 수능능력시험 준비 상황과 원자력발전소 안전 상태에 대해 각별한 점검을 당부했다.

한편, 청와대는 15일 7박 8일간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성과와 관련해 “우리나라의 외교 지평을 넓히고 우리 정부가 구상하는 외교·안보 정책의 밑그림을 완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청와대는 지난 11일 베트남 다낭에서 열린 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을 통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 반도 배치로 경색됐던 양국 관계를 정상화했다고 자평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홍준학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감사원장 지명 늦어질 듯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오전 홍준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 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동남아 순방을 마치고 한국으로 출발하기 전 재송부 요청을 위한 전자결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사실상 청와대가 홍준학 후보자의 임명 강행 수순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 오는 20일까지 청문경과 보고서를 다시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국회가 이날까지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홍 후보자의 장관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 청와대가 국회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한 각료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장,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장 등 4명이다.

한편, 신임 감사원장 지명은 상당 기간 늦어질 전망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물망에 오른 분들이 고사하는 경우가 많고 검증과정에서 부적합하다는 판단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며 “지명이 많이 늦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황창현 현 감사원장의 임기는 다음 달 1일로 종료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처음과 끝을 알 수 없는 무한반복 ‘적폐 고리’



김은영의
‘그림 생각’

(203) 뫼비우스의 띠

네덜란드의 판화가이자 그래픽 디자이너였던 마우리츠 코르넬리스 에셔(1898~1972)는 당대의 평단에서 인정받지 못했다고 한다. 대중들이 아직 그의 작품을 받아들이 준비가 덜된 때이기도 했고, 시대를 앞선 그의 작품이 예술의 고전적 범주를 훨씬 뛰어넘어서이기도 했다.

당시 에셔의 예술은 수학의 원리들을 독창적인 방식으로 시각화하여서 예술가보다는 수학자와 과학자들을 때로시켰는데, 오늘날엔 미술은 물론 건축, 음악, 디자인, 더 나아가 대중문화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가 일상

적으로 마주할 수 있는 현실적 이미지가 수학적 원리로 재구성되고 그로 인한 조형미적인 분위기와 공간의 환영은 작각과 진실 사이의 철학적 담화를 꽃피우게 해 더욱 각광을 받고 있는 지도 모른다.

에셔의 ‘뫼비우스의 띠2’(1963년 작)는 해석기하학과 위상수학으로 압축을 이룬 뫼비우스(1790~1868)가 발견한 무한반복의 ‘뫼비우스 띠’를 시각적으로 묘사한 목판화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는 그물 모양으로 만들어진 뫼비우스 띠 위를 아홉 마리의 개미들이 맴돌고 있다. 가도 가도 어느덧 원점으로 돌아오고 마는 끝없는 여정이다. 처음과 끝을 알 수 없는 반복은 어찌할 수 없는 삶의 숙명적 순환을 그리는 것 같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이상의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던 에셔는 우리 인간사를 ‘뫼비우스의 띠’를 통해 은유적으로 묘사하고 싶었을 것이다. 새로운 길이라 생각하고 성실하고 차분하게 출구



에셔 작 ‘뫼비우스의 띠2’

를 찾았건만 그 길이 끝을 알 수 없이 맴도는 길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저 이상한 고리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 고뇌하게 한다.

요즘 우리가 가는 길이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든다. 뉴스로 접하는 오늘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이슈들이 언젠가 어디선가 보았던 것 같은 기이함과 함께 무한 반복의 고리를 상상하게 하기 때문이다.

〈광주비엔날레광주폴리부장·미술사박사〉

광주일보 65주년 연중 캠페인 | 빈병, 반환하고 환불받아요!

빈병기보증금 상담전화 1522-0082
www.kora.or.kr

빈병 반환으로 환경 살리고! 보증금 받고! 빈병기 보증금 제도

소비자가 유리병으로 된 소주, 맥주 등을 마시고 소매점에 빈병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로 빈병기의 회수 및 재사용을 촉진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17년 1월 1일 생산된 제품부터 빈병기 보증금이 인상됩니다

4원

면적 150% 확대 색상 변경

100원

[인상 전] [인상 후]

대상품목	규격	2016. 12. 31. 까지 출고되는 제품(기존)	2017. 1. 1. 부터 출고되는 제품(신규)	비고
재활용병 사용량 제17조 2항에 따른 제품	190ml 미만	20원/개	70원/개	소형 마사카리 등
	190ml 이상 400ml 미만	40원/개	100원/개	소주, 맥주(소형), 청량음료 등
	400ml 이상 1,000ml 미만	50원/개	130원/개	맥주(중·대형) 등
	1,000ml 이상	100원 이상 300원 이하/개	350원/개	대형 청동 등

!

2016년 12월 31일 이전 생산된 제품은 2017년 1월 1일 이후에도 **인상 전 보증금으로 반환**됩니다. 라벨이 훼손되거나 이탈되어 보증금액 확인이 불가능한 제품은 인상 전 보증금으로 반환됩니다.

환경부

한국순환자원
유통지원센터

보해양조